총탄과 뱀의 송곳니(2)

현장조사 포인트는 총 두 군데입니다.

-경찰SUV차량

방탄방패의 존재를 NPC가 알려줄 수 있음

-흰색 지붕의 2층 집

[엄폐물 없음으로 인해 접근불가]

수호자는 저격수의 존재를 반드시 알려야하며 엄폐물 등으로 엄폐하지 않을 시 페널티가 존재함을 고시하여야합니다.

\*페널티: 시크릿다이스의 성공판정이 어려움이 아닌 일반성공판정으로 상향됨 등 진행상 난이도의 상승이 있는 종류의 페널티.

차량에 첫 접근시도 시 시크릿 다이스

차량접근에 필요한 턴은 2턴입니다.

발생빈도는 약 3턴당 1번(조절해주세요)

(시크릿 다이스의 발생 원인: 하얀 지붕 집 방향에서 플레이어에게 저격행위)

1D100(41>DICE VALUE:어려움)

\*이 값은 현장접근에 필요했던 총기기능 최소치(41)의 어려움 판정 값으로 계산했습니다. 난이도 수정의 필요시 수호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해주세요.

시크릿다이스가 성공 시 해당 플레이어의 대항판정에 들어갑니다.

PL의 대항판정은 회피와 민첩 중 높은 쪽으로

실행합니다.

대항 실패시 피격된 것으로 판단, 대미지 다이스를 굴려주세요. 데미지 베이스는 9미리 파라블럼 권총탄 기준(1D10)이나 수호자의 재량에 따라 결정해주세요.

\*이 기능으로 인해 PC가 기절,쇼크,빈사,사망 등으로 움직임이 봉쇄되면 다시 움직일 때 까지 더이상 이 PC에게 사격하지 않습니다.

경찰 SUV 차량.

(여기서 피격시 갑옷5 판정이 적용됩니다)

쏘렌토 급의 거대한 차체를 자랑하는 차량입니다. 여태까지 차주와 현장들을 쏘다니며 묵빛의 육중한 모습을 보여주었으나, 운전석 아래 쓰러져있는 사람 때문인지 오늘은 차갑게 빛나는 경광등만 번쩍일 뿐인 검은 관처럼 싸늘한 느낌만 납니다. 활짝 열린 운전석쪽의 차문은 피탄당한 흔적이 여러개입니다.

운전석 방향 차문 아래 사람의 형체:

이 지역 경찰제복을 입고있는 사람입니다. 방탄복도 당연히 착용하고 있으나, 지금은 비릿한 쇠냄새가 가솔린 냄새와 섞여서 다소 역한 향을 풍기기에 당장 뺏어입기는 힘들어보입니다. 신원을 확인하면 목 부근에 총상을 확인하며 확실하게 사망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8 캘리버 6연장 리볼버(망가짐)

38구경 S&W M64모델입니다. 신뢰성이 높은 무기였으나 지금은 실린더 핀에 손상이 간 것인지 해머콕킹에도 실린더가 전진하지 않습니다. 격발도 불가능합니다.

시동은 꺼져 있으며 중요기관이 피탄된 것인지 계기판에 경고등이 여러개 들어옵니다. 가솔린 냄새도 진동하는 것을 보면, 시동을 키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을 지도 모릅니다.

운전석과 조수석, 글로브박스 등의 조사

앞좌석 :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에 다양한 공구들이 담긴 공구가방이 놓여있습니다. 한손에 들어오는 작은 사이즈별 스패너와 렌치, 집 타이 묶음번들, 줄과 줄자 등이 들어있지만 망치나 드라이버같은 휘두르기 좋은 공구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글로브박스 : 단단히 잠겨있습니다. 안에는 .223rem 탄약박스 1개(20여발들이), 여분의 수갑과 목장갑 등의 작업보조도구들이 들어있음을 확인가능합니다. 기어박스 앞 수납함에 열쇠가 들어있습니다.

\*223rem : 흔히들 아는 5.56mm의 민수용으로 알려진 탄종입니다. 작용하는 압력이 556에 비해 낮아 사냥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일부 개인의견에 따르면, 목표물 이외의 것을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목표물의 제압 시에도 나쁘지않은 성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소총으로 사격 시 대미지(1d8)+3로 계산합니다.

총기거치대: 한 정의 AR15 소총이 놓여있습니다.

AR15소총: M16A2의 모양을 가진 민수용, 경찰용 고정단발형 소총입니다. 캐링핸들에 4배율로 잘 알려진 ACOG 광학조준기가 장착되어있어 비교적 멀리서도 대응사격을 가할 수 있어보입니다.

\*장착된 탄창:20발들이

뒷좌석: 비어있습니다.

트렁크: 철판으로 덧댄 방패가 하나 있습니다.

\* 방패: 기존 진압방패에 볼트넛팅으로 5T두께의 철판을 덧대서 한손으로 들기엔 너무나 무겁습니다. 그러나 그 두께만큼의 방호력을 기대할 수 있어보입니다.[엄폐물 판정]

페널티: 힘 70이하 사용시 판정이 필요함